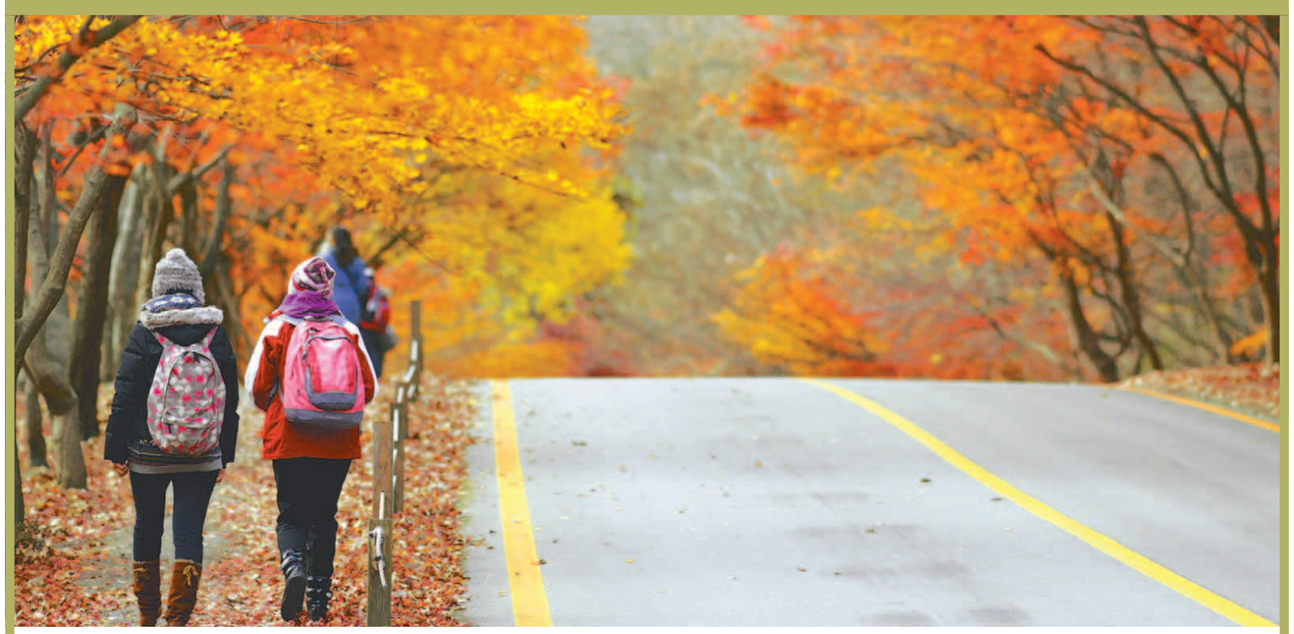
9월 25일~10월 5일 '가을 관광주간'…17개 시·도 156개 프로그램 봇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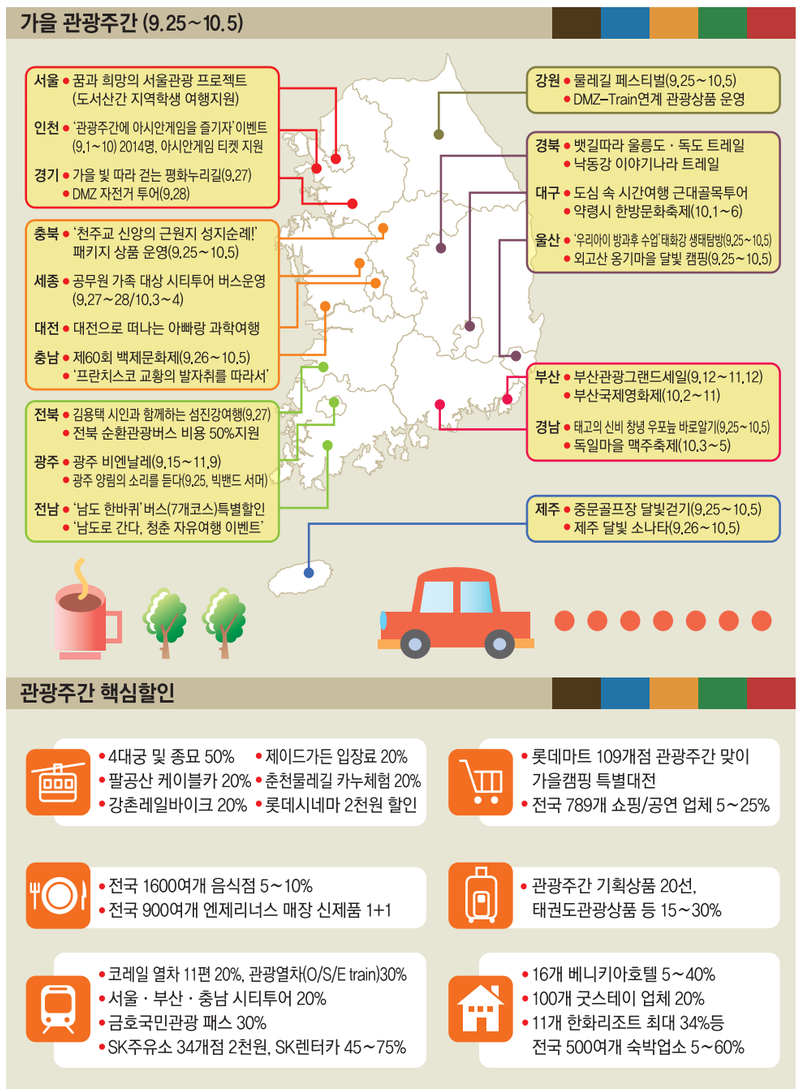
가을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다양한 할인혜택과 특설 관광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가을 관광주간이 처음 실시된다. 사진은 무르익은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는 여행객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어디까지 가봤니?

이달말부터 내달초까지 '가을 관광주간'
지역별 코스·연령대별 맞춤형 관광 개발
남도 한바퀴 7개코스·DMZ 열차 상품도

"무르익는 가을,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25일부터 10월5일까지는 '가을 관광주간'이다. 정부가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초 도입한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이다. 봄·가을 각각 11일간 진행하는 관광주간은 5월 초 처음 실시됐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사실상 이번이 '관광주간'의 실질적인 첫 시행이다. 가을 여행을 계획한다면 3700여개 업체가 참여해 각종 할인과 맞춤형 관광 코스를 제공하는 관광주간을 주목해 보자. 의외로 실속 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지역별 156개 프로그램, 연령대별 맞춤형 상품

관광주간의 특징은 막연하게 국내 여행을 떠나자고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과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다.

가을 관광주간에는 17개 시도가 지역별로 156개의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전남의 남도 한바퀴(7개 코스) 버스 ▲전북의 김용택 시인과 함께 하는 섬진강 여행 ▲강원 물레길 페스티벌과 강원 4대 호수, 비무장지대 열차(DMZ-Train) 연계 상품 ▲충북, 충남의 '천주교 성지순례' 패키지 ▲인천의 '아시안 게임을 즐기자' 이벤트 ▲부산의 관광그랜드세일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 달빛 캠핑 ▲경기의 가을빛 따라 걷는 평화누리길과 비무장지대 자전거 여행 ▲서울의 '꿈과 희망의 서울 관광' 프로젝트 등이 있다.

연령대별로 상품 특성을 달리한 것도 눈길을 끈다. 20대는 청춘여행, 30~40대는 가족여행, 50대는 동창여행 등 나이별로 취향과 여행 목적을 맞춘 상품과 관광 코스를 개발했다.

●교통 숙박 관광명소 할인

여행비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먹고, 자고, 이동하는 부분에 할인혜택을 집중했다. 코레일은 서울, 용산, 부산, 진주, 목포, 여수의 주중 상하행 열차 11편에 20%, 자체 관광열차에 30% 할인 혜택을 준다. 고속버스는 금호고속이 5일권과 7일권을 30% 할인한다.

국내 여행에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자동차(73.2%, 2013 국민여행실태조사)인 점을 고려해 주유비 및 렌터카를 할인한다. SK에너지는 관광주간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된 관광지 주유소 70개에서 주유비를 할인(2000원)한다. SK렌터카는 전국 30개소에서 이용료를 45~75% 할인한다.

숙소는 한화리조트와 부산롯데호텔, 부산파크하얏트, 관광공사가 지정·운영하는 중저가 숙박시설 베니키아체인호텔 16개, 굿스테이 100개 등에서 10~60% 할인을 실시한다.

음식은 각 지역의 추천 맛집 547개와 남한산성 백숙거리, 포항 과메기물회 거리, 강릉 초당 두부거리 등 음식테마거리 음식점 160개소, 농가 맛집 등 1607개 업체가 이 기간 할인을 한다. 이밖에 서울 4대 궁과 종묘 입장료를 50% 할인하는 등 지역 관광시설 437개에서 입장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에서 다양한 장르의 여행 콘서트

여행의 낭만과 감동을 한층 높여줄 공연도 다양하게 열린다. 관광주간 동안 가을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전국 명소별로 165회의 여행콘서트가 열린다.

부산 광안대교와 하동 최참판댁에서는 재즈 선율을 감상할 수 있고, 순천 낙안읍성에서는 타악그룹 유소의 신명나는 리듬에 젖을 수 있다. 영주 선비촌에서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클라리넷 앙상블 레봉벡의 클래식 공연이, 정선 강원랜드에서는 소리꾼 장사익의 평택 아리랑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통영의 국수호 무용단 공연, 추풍령역의 시낭송 콘서트, 주문진의 강원도 장타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광 명소에서 접할 수 있다. 가을 관광주간의 지역별 여행 프로그램과 상세 정보는 관광주간 웹사이트(http://fall.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개천절 낀 '관광주간' 할인혜택 누릴 수 있을까?

'관광주간'은 민간업체는 물론 지자체, 중앙기관, 공기업 등 관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체가 나서는 전방위 이벤트다. 하지만 넘치는 의욕에 비해 세부적인 면을 보면 첫 실행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관광주간이 10월 초 개천절 연휴와 겹쳐 참여하는 숙박업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할인 이벤트에 참여한 리조트 체인이나 특급 호텔의 경우 평소 연휴기간에는 방 구하기가 어려운데, 관광주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관광주간을 오히려 여행 고정 수요가 많은 연휴를 피해 지정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는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역별 주요 거점까지 이동하는 광역 교통편은 다양하고 할인혜택도 있는 반면에 역이나 터미널에서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연계교통수단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 행사 기간에만 반짝 내놓는 일회성 이벤트나 공연 보다는 지역 특색이나 주요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해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고유 콘텐츠 개발도 요구된다.

김재범 전문기자

섹시한데 백치미까지…완벽한 '록시 하트' 아이비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 뮤지컬 '시카고' 히로인 아이비

여자배우 중에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배우는 많다. 섹시한 배우도 적지 않다. 섹시하면서도 백치미까지 갖춘 마릴린 먼로형 배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섹시하면서 백치미가 있으며, 코믹코드까지 장착한 여배우는 없다. 정말 없다. 아니, 없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드디어 한 명을 찾아냈다. 가수 아이비다. 뮤지컬 '시카고'의 '록시 하트'는 섹시하면서 백치미가 있으며 코미디까지 소화해야 하는 하드한 역할이다. 영화에서는 르네 젤위거가 열연했다. 아이비의 '록시 하트'는 정말 근사했다. 한마디로 '가진 게 많은' 배우라는 느낌이다. 성녀의 순수함과 팜파탈의 잔혹함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음색을 가졌다. 빠른 템포의 음악과 골반을 흔드는 섹시댄스 가수로만 아이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댄스음악보다 발라드를 더 많이 부른 가수다. 2012년 '찢긴 가슴'이 실린 복귀앨범 역시 발라드 곡들이 넘실댔다.

댄스가수 출신답게 브로드웨이 뮤지컬 안무의 전설 밥 파시의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밥 파시의 안무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출 수 없다. 걷어차는 다리의 각도까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더 없이 은근하고 섹시한 느낌을 표현해야 한다. 아이비의 안무는 역대 '록시 하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록시(아이비 분)가 변호사 빌리(이종혁 분)에게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시카고'의 한 장면. 아이비는 역대 '록시 하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

시카고의 마지막 장면. 감옥에서 풀려난 록시 하트와 벨마 켈리(최정원 분)는 함께 공연을 펼친다. 아이비는 비록 스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토록 갈망하던 무대에 서게 된 록시 하트의 감정선을 벌겋게 달아오른 눈과 미소를 띤 입가의 미묘한 각도로 표현해냈다. 그리고 벨마와 춤을 추며 점차 행복감의 수치를 끌어올려간다. 섹시하지만 어딘지 멍청하고, 멍청한 듯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우가 꼬리 아홉 개를 말고 있는 여자로만 보아 왔던 '록시 하트'가 '여자'로, '사람'으로 다가오는 명장면이었다.

이런 '록시 하트'를 보여준 배우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비는 완벽했다. 옥주현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등받이는 90도…무릎은 60도 유지

■추석 귀성길 장시간 운전 주의점

신호 대기시간 팔·어깨·허리 스트레칭
최소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서 휴식
도착 후 온수로 샤워·1~2시간 더 숙면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향에 내려갈 생각으로 보름달처럼 부풀어 오르던 마음은 귀성, 귀경길 꽉 막힐 교통체증만 생각하면 이내 가라앉는다. 특히 연휴 기간 쌓인 피로와 과음, 과식 후의 장시간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하면 목, 어깨, 허리 등에 부담을 준다. 좁은 공간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다리로 분산되지 못해 신체 곳곳에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운전 시에는 올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등과 엉덩이, 등받이에 붙이고 수시로 스트레칭

먼저 운전석을 본인의 체형에 맞게 잘 조절해 등과 엉덩이를 등받이에 바싹 붙여 일직선이 되는 자세를 취하고, 등받이는 90~100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쿠션을 허리 뒤에 두는 것도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무릎은 각도를 60도 정도로 유지하고 페달을 밟았을 때 완전히 펴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좋다.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장시간 운전을 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운전 중 틈틈이 뒷목과 양쪽 어깨, 허리 부위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 대기 시간을 이용해 팔, 어깨, 허리를 길게 쭉 펴주고, 최소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휴게소에서는 차에서 내린 후 전신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몸을 풀어준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평소보다 1~2시간 정도 수면시간을 늘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척추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통증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에는 따뜻한 물에 타월을 적셔서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통증이 보름 이상 계속 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바로병원 척추센터 이정준 원장은 "장시간 운전은 허리에 무리를 준다. 휴식 없이 오랜 시간 운전만 한다면 허리디스크 등의 척추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장시간 운전 부상 예방 스트레칭

1. 팔을 위로 쭉 펴서 20초 동안 멈춰 있는다.
2. 양손으로 허리를 짚고 등을 꽉 편 상태에서 20초 동안 정지해 있는다.
3. 등을 곧게 펴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머리를 아래로 지긋이 누른다.
4. 머리 뒤로 양손을 가져가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누른 상태에서 어깨를 좌우로 움직인다. 손을 바꿔 반대편도 똑같이 움직인다.
5. 양 손을 깍지 끼고 가슴 높이로 들어올린 다음 앞으로 팔을 쭉 뻗는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엣지 공개

세계 최초의 3개면 디스플레이를 지닌 스마트기기가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4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중국 베이징, 미국 뉴욕에서 신제품 공개행사인 '언팩'을 동시에 개최하고 '갤럭시 노트4', '갤럭시 노트 엣지', 스마트워치 '삼성기어S', 가상현실 헤드셋 '삼성기어 VR' 등을 공개했다.

가장 주목받은 제품은 '갤럭시 노트 엣지'였다. 세계 최초로 커브드 3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스마트폰 전면뿐만 아니라 우측 옆면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 날씨, 시간, 메시지, 연락처 등을 터치하면 메인화면으로 불러올 수 있다.

'갤럭시 노트4'는 화면, 카메라, 배터리, 통화 등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기능을 최고 사양으로 구현했다. 노트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플라스틱이 아닌 프리미엄 메탈 프레임을 적용한 것이 눈에 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갤럭시 노트3와 같은 5.7인치. 하지만 화질은 두 배 더 선명한 쿼드HD(2560x1440)를 사용했다. 카메라는 갤럭시 노트2의 두 배인 1600만 화소로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되던 스마트 광학식 손떨림 기능을 장착했다. 갤럭시 노트4는 10월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노트 엣지는 일부 국가에서만 만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롯데리아, 베트남에 200번째 매장 오픈



롯데리아가 베트남 현지 200번째 매장인 원낌고밥점(사진)을 최근 오픈했다. 호치민시내에 위치한 원낌고밥점의 오픈식에는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이사, 호치민시 고밥군인민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롯데리아 베트남 200호점 개점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롯데리아는 오픈 기념식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0만동(240만원)을 기부했다.

1998년 베트남에 첫 선을 보인 롯데리아는 철저한 현지화 메뉴와 공격적인 점포 개발 운영을 통해 2011년 100호점 매장을 오픈했다. 2013년에는 베트남 매출 490억원을 돌파하며 베트남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롯데리아는 200호점 오픈으로 올해 목표인 210호점 운영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양형모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